



예수병원, '희망 2023년 예수병원' 시무예배

예수병원 2023년 시무예배가 병원 본관 4층 예배실에서 열렸다.

2일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 시무예배는 최소인원으로 시무예배를 드렸으며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통해 참여 했다.

김선중 원목실장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신동규 부원장의 기도, 예수병원합창단의 친양에 이어 이사장 입기수 목사(전주예일교회)의 임신한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입기수 이사장은 "새해부터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새생명의 존엄함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흙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린 새생명 탄생에 기뻐하고 소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식 병원장을 신년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기를 미주한 의료시스템 변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계위기 중심에 있다"며 "병원 곳곳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집행부의 노력과 모든 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혁신을 담아 예수병원의 미래를 향한 변화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도전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호권 기획조정실장의 2022년도 실적보고 및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며 예수병원 전 직원들은 2023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영태기자



전북적십자사, 새해 맞이 떡국 나눔 봉사 가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주완산지구봉사회, 흥이봉사회와 전주 꽃밭정이 노인복 지원을 찾아 지역 어르신 500여 명에게 떡국나눔봉사 행사를 펼쳤다.

이번 떡국 나눔 봉사는 지난 2022년 친절봉사대상을 수상한 각시미용실 김미선 원장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금액과 적십자 직원들이 1년동안 모금한 기부금으로 더해 마련했다.

떡국나눔봉사 행사는 전북적십자사 임직원들과 적십자 전주완산지구봉사회, 흥이봉사회 봉사원 40여 명이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북적십자사는 지난 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적십자회비모금을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김제시,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선제적 대응 나서

김제시는 한파에 따른 계량기 동파가 다수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계량기 동파 예방, 응급 복구 등 동절기 수도시설 관리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영하 10°C 이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한파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김제시는 시민들이 미리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와 동파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은 "겨울철 빈번히 발생되는 상수도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며, "수용기에서도 동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량기함에 허우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채워 넣고 비닐로 계량기함을 넓게 감싸 친비로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고, 외출하거나 아간에는 수도꼭지의 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하면 수도관 결빙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김제시 상하수도과(063-540-35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최노태기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 연금 만들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시무식서 기금수익률 안정화·복지사업 강화 등 의지 밝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올해 중점 추진 방향으로 △상생의 연금개혁 지원 △안정적인 기금운용 △효율적 국민연금서비스 제공 및 국민혜택 확대 △복지사업 강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2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기능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 이사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의 국민연금개혁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주체,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연금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긍정적 여론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기금운용에 특화된 세무 조작을 신설하고 운용인프라 확충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은 지속된다.

또 지속적인 국민연금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기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기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영태기자



나아가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다.

김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강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 전북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지역 공동 기관의 역할이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정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은성 기자

왕석순 전주대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왕석순 교수(가정교육과)가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정책 추진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왕 교수는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국정 및 겸임 정교과서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듀넷 티 클리어 탑재 자료), 교육과정 심의회 심의위원,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개발, 학교 인증교육 7대 표준안 개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학교 인구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에서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활동하며 국가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18년 2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유공자'로 선정,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2022년 12월 행정고시된 2022 개정 실품(기술·가정)교육과정 개발에서 팀장으로 연구를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다시 수상하게 됐다.

왕석순 교수는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은 참여뿐만으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는데, 두 번이나 표창으로 이어져 너무 큰 영예"이라며 "국가 수준의 연구 경험을 우리 지역사회와의 초·중등 교육 및 대학 발전에 활용하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고, 특히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춰 수업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황인수 본부장,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황인수 교육혁신본부장이 교육부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황 본부장은 교육혁신본부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년 여에 걸쳐 전주대학교의 교육혁신을 총괄하고 있다. 학생 성공에 중점을 두고 SUPER 학습역량 및 전공 능력 기반 교육과정, 융합 교육 및 원격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주도해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의 위상 정립에 기여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사업(PILOT) 선정, 2년 연속 최우수대학(A) 선정, 성과분석 및 사업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 연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황인수 본부장은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가 학생 성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강예자 실장,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강예자 실장이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019년부터 미래융합대학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인 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최고의 학습자 민족도를 달성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의 고등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특히,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교육콘텐츠 개발 성인과 재직자들의 수요에 맞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등 성인 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데 노력했다.

강 실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학업을 종료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교직원 덕분에 받는 상"이라며 "검시한 마음으로 미래융합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북고등평생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이경진씨,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비전대학 입학처 이경진 원생이 최근 전문대학 우수직원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경진씨는 전문대학의 비전 및 취업과 연계된 학과의 특, 장점을 홍보하며 전문대학의 입시정책을 추진 관리함으로써 한국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育부는 전문대학 우수직원을 선정해 표창을 하는데, 이는 전문대학의 학사, 재정·사업 추진 등 행정·전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직원을 발굴해 대학 업무 현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하는 사람의 대우받는 조건문화를 형성해 소속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이경진씨는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상담을 통한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해 대학 뿐만 아니라 한국전문대학의 위상을 학생들에게 바로 알리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 학부생팀, 논문연구 '우수상'



지난 10월 10일 홍보과에서 거행된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익산지회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문용만 부회장은 장영문 지회장에 이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청정원이 비롯한 장애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문용만 부회장은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퇴비제로 살아있다"며 "영광으로 드리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용만 부회장은 30여년 간 벼농사를 짓은 천상 농사꾼이 지역 평화동 통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인으로 통한다. 또한 문용만 부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랑은 누구 보다 각별하다.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익산지회 부회장을 충실히 맡고

있으면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희생을 미다하지 않는다.

/정은성 기자

김성숙 하서면 백련농장 대표, 장학금 300만원 기탁



김성숙 대표는 "우리나라 전통방식을 이어받아 정성껏 전통장류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좋은 맛거리를 본고장으로서의 부인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인과 균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전통장류로

부인군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금까지 기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백련농장 대표는 "마을기업으로 계량기함을 넓게 감싸 친비로이를 들어 가지 않도록 하고, 외출하거나 아간에는 수도꼭지의 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하면 수도관 결빙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백련농장 마을기업은 2012년 1월에 전라북도 미을기업으로 지정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 마을기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은성 기자